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45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10월 19일

‘신흥국 탈락 위기’ 인도네시아 증시 대폭락… 하루 만에 11.5% 증발, 연초 대비 40% 주저앉아

- MSCI '독립 시장(Standalone)' 강등 경고에 투매 패닉… IHSG 5,185선 붕괴
- 시나르마스 · BBCA 등 4조 8,800억 루피아 규모 초대형 블록딜 속출
- 헬스케어 13% 급락 등 전 업종 파란불… 亞 주요국 상승세 속 나홀로 폭락

불타는 금요일 16일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이 일대 충격에 휩싸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지위를 기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독립 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강등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패닉 셀(공황 매도)이 촉발됐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IHSG)는 하루 만에 11% 넘게 폭락했고, 연초 대비 낙폭은 40%대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5조 루피아에 육박하는 대규모 장외 대량매매(블록딜·크로싱)가 터져 나오며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16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에 따르면 이날 IHSG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1.57% 폭락한 5,185.0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밀려났으며, 장중 내내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된 양상을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단 10개에 불과했던 반면, 775개 종목이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보합에 머문 종목은 10개에 그쳐 시장 전반이 사실상 ‘투매 장세’로 전락했다.

이날 하루 동안의 폭락으로 IHSG는 최근 한 달간 19.50% 급락한 데 이어, 연초 대비(YTD) 하락률이 40.04%에 달하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날 BEI의 전체 거래량은 685억 7,000만 주, 거래 횟수는 213만 건, 거래대금은 31조 9,400억 루피아로 폭증했다. 패닉 장세 속에 시가총액은 9,176조 루피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년간 인도네시아 주가지수 그래프 2026년 10월 16일 종합주가 지수

◆ MSCI ‘독립 시장 강등’ 시사에 패닉… 국가 위상 격하 우려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뇌관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산출 기관인 국제투자컨설팅사 MSCI의 경고였다. MSCI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규제 환경과 유동성,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신흥시장에서 제외하고 ‘독립 시장’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만약 강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대규모 유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립 시장은 제도적 미비나 경제적 위기로 인해 글로벌 투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속하는 단계로, 과거 혹은 현재 국가 부도 사태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 레바논, 우크라이나, 짐바브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위상이 추락함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흥국 지위 박탈은 글로벌 연기금 등 장기 투자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전반의 신인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악재”라고 평가했다.

집계된 주요 블록딜 규모만 4조 8,800억 루피아에 육박했다. [A3면에서 계속]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ccm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프라보워 대통령, BNPB 청장 전격 교체… 친동생 KPK 입건 여파 주목

- 수하얀토 전 청장 해임, 후임에 크리스토메이 시안투리 육군 중장 임명
- 재난 예비비 비리 의혹 속 내부 쇄신 예고… "사법 절차 개입 없이 원칙 대응"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가재난방지청(BNPB)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부패방지위원회(KPK)가 BNPB 내부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직후 단행된 조치여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15일 자카르타 국가궁에서 크리스토메이 시안투리 육군 중장의 신임 BNPB 청장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BNPB 청장의 해임 및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 제113P/2026호에 의거해 이뤄졌으며, 이로써 2021년 11월부터 재임해 온 수하얀토 전 청장은 약 5년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수장 교체는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DSP) 조달 과정에서의 물품 및 용역 비리 의혹으로 기관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단행됐다. 앞서 KPK는 기습 단속(OTT)을 통해 전날인 14일, 수하얀토 전 청장의 친동생이자 BNPB 전문위원인 비마 세티아완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5명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 명단에는 비마 외에도 가브리엘 푸르와카시깃(GPS) 재난긴급지원관리국장 겸 계약담당관(PPK), 리차드 에를랑가 BNPB 전문위원, 그리고 민간인 2명이 포함됐다. 비마와 리차드는 재난 예비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측은 친동생의 사법 처리가 이번 청장 교체의 직접적인 사유인지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권 차원에서 비리 의혹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취임식을 마친 크리스토메이 신임 청장은 강력한 내부 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취임 첫 행보로 조직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루스티안 BNPB 수석사무총장(Sestama)의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교체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BNPB 차원의 수사 개입은 결코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은 법령에 따라 사법 당국이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메이 시안투리 신임 BNPB 청장 취임식 Kepala 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 (BNPB) (Sumber : istimewa)

아울러 크리스토메이 청장은 취임 직후 프라보워 대통령으로부터 "지체 없이 속도를 내어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비리 의혹과 별개로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산불, 토지 화재, 홍수, 화산 폭발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진단하며, "각 부처와 지자체, 치안 당국 간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민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A1면에 이어서]

◆ 재벌 대기업·금융·국영기업 중심 4조 8,800억 루피아 블록딜 속출

시장의 공포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협상 시장(Pasar Negosiasi)에서는 주요 재벌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금융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블록딜(지분 대량매매)이 체결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날 하루 동안

가장 두드러진 거래는 시나르마스(Sinar Mas) 그룹의 금융 지주사인 PT 시나르마스 멀티아르타(SMMA)에서 발생했다. SMMA는 주당 14,889루피아에 총 3조 9,800억 루피아 규모의 대규모 장외 매매가 이뤄졌다. 이어 같은 그룹 산하의 에너지·인프라 기업인 PT 디안 스와스타티카 센토사(DSSA) 역시 주당 1,000루피아에 2,000억 루피아 상당의 거래가 성사됐다.

주요 블루칩 종목들도 매물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PT 뱅크 센트럴 아시아(BBCA)는 주당 6,071루피아에 1,001억 8,000만 루피아 규모의 크로싱 거래를 기록했다. 국영 기업군에서는 대표 통신사인 PT 텔콤 인도네시아(TLKM)가 주당 1,961루피아에 3,236억 루피아, 대형 국영은행인 PT 뱅크 만디리(BMRI)가 주당 3,485루피아에 1,180억 루피아의 블록딜을 나타냈다. 광물 대기업 PT 알람트리 미네랄스 인도네시아(ADMR) 역시 주당 1,410루피아에 1,580억 루피아 규모의 대량매매가 체결되는 등 주요 종목에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비중 축소가 급박하게 전개됐다.

◆ 헬스케어 -13.16% 등 전 업종 붕괴… 꼬 증시 '나홀로 역주행'

업종별로는 BEI에 상장된 전 섹터가 일제히 파란불을 켰다. 특히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는 헬스케어 섹터마저 투매의 타깃이 되며 13.16% 급락해 전 업종 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사인 PT 칼베 파르마(KLBF)는 이날 14.56% 폭락한 675루피아로 주저앉았다.

개별 종목별로는 PT KB뱅크 인도네시아(BBKP, 34루피아), PT 에사 인더스트리즈 인도네시아(ESSA, 476루피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PT 판타이 인다 카푹 두아(PANI, 4,350루피아) 등이 가격제한폭인 15%까지 밀리며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품절주나 개별 호재성 중소형주인 PT 뱅크 오브 인디아 인도네시아(BSWD)는 25.00%(5,625루피아), PT 아수란시 비나 다나 아르타(ABDA)는 24.93%(4,710루피아), 물류 기업 PT 구나 티무르 라야(TRUK)는 24.81%(3,220루피아) 급등하며 상한가에 근접했으나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날 인도네시아 증시의 폭락은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훈풍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1.39% 급등한 것을 비롯해 홍콩 항셍지수(0.52%),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24%),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I) 지수(0.25%) 등 역내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대외 경제 지표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MSCI 등급 강등이라는 인도네시아 증시 고유의 구조적 리스크가 시장을 강타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MSCI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카르타 현지의 한 증권사 수석 연구원은 "MSCI의 독립 시장 분류 가능성 언급 자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는 강력한 '비중 축소' 신호로 작용했다"며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는다면 자본 유출과 지수 하락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의무적 할랄 인증 시한 대거 연장… 화장품·식음료 수입식품 2028년 10월까지 유예

- 정부 시행령 제42/2024호 개정… 산업계 준비 부족 및 통상 마찰 우려 반영
- 천연의약품 · 화장품 · 화학제품 등 2026년에서 2028년 10월로 2년 연장
- 영세기업 및 수입 식음료도 2028년 10월 발효… “법적 안정성 · 무역 연속성 확보”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적용 시한을 전격 연장했다. 특히 기업들의 준비 기간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온 천연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해 수입 식음료 및 영세기업 제품의 의무화 기한이 기존 2026년 10월 18일에서 2028년 10월로 대거 늦춰졌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할랄 인증 의무화 전면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10월 17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성명을 내고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42/2024호(PP 42/2024)’를 공식 개정하여 의무적 할랄 인증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소(Susiwijono Moegiarso) 경제조정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 할랄 생태계의 실제적인 준비 상태와 산업 현장의 수용 여력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기업과 인증 기관 등 생태계 전반이 차질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이행 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 조치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건강보조식품·화학제품 등 비식품군 인증 기한 2028년으로 유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계적 인증 요구 품목의 시한 연장이다. 당초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완료해야 했던 주요 비식품 소비재 품목군이 2028년 10월 17일까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기한 연장 대상에는 ▲천연 의약품(전통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 변형(GMO) 제품 및 기타 특정 소비재가 대거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공급망의 복잡성과 원료 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26년까지 인증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분야다. 이번 조치로 국내외 관련 제조업체들은 원료 대체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숨통을 틔우게 됐다.

영세기업 및 ‘수입 식음료’도 2028년 10월까지 연장… 통상 마찰 차단

식품·음료 및 도축 관련 품목에서도 대대적인 일정 조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제160조에 따라, 일반 식품·음료 및 도축 관련 서비스(도축 서비스 자체 제외)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효력 발생일은 2028년 10월 18일로 변경됐다.

특히 비용과 행정 절차에 취약한 영세 및 소규모 기업(MSMEs)의 식품, 음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 이행 요건 준수 기한도 2028년 10월 17일까지로 유예됐다.

아울러 해외 수출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수입 식품 및 음료, 도축 제품, 도축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시작일 역시 2028년 10월 18일로 확정됐다. 이는 국가 간 할랄 인증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각국 인증기관 간의 협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통관을 강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병목 현상과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및 할랄 인증서 견본

의약품 일정은 유지… BPJPH 규정 제4/2026호는 폐지 수순

반면, 장기 단계적 로드맵을 따르는 기타 품목군은 기존 시행령 제42/2024호의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의약품(OTC)과 제한적 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존 일정대로 2029년 10월 17일까지 단계적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의 인증 완료 기한 역시 종전과 다름없이 2034년 10월 17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발맞추어 행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수입 할랄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규정했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규정 제4/2026호’는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규정 준수라는 대원칙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국가 할랄 생태계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완급을 조절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법적 안정성과 적응 기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무역 흐름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할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8차 내각 개편 단행… 차관·기관장 등 7명 공식 임명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내각 개편을 단행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10월 15일(목)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공식 임명식을 열고, 차관 및 주요 국가기관 수장 등 7명의 신임 고위 공직자를 정식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이 이끄는 ‘메라 푸티(Merah Putih)’ 내각의 전략적 전열 재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취임 선서와 임명장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각자의 종교에 따라 성실히 선서하겠는가"라고 묻자, 임명자 전원은 일제히 "그렇다"고 답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 이어 서명 절차가 마무리된 후 프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이번 개편에서는 국방 및 안보 역량 강화와 함께 재난 대응, 환경 관리 등 핵심 현안 부처에 군 출신 및 각계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됐다. 국방부 물류·방위산업·기술 담당 차관에는 유수프 자우하리 공군 원수가, 국방부 전략·교리·전력 건설 담당 차관에는 리차드 탐부볼론 육군 대장이 각각 중용됐다.

아울러 농업부 차관에 알림 세티아완 슬라멧 박사, 이민국 및 교정청 차관에는 M. 마울라나 붕아란 변호사가 발탁됐다. 국가 위기관리와 직결된 국가재난방지청(BNPB) 청장에는 크리스토메이 시안투리 육군 중장이 임명됐으며, 국가이탄지·맹그로브 관리청(BPGMN) 청장과 부청장에는 세티아완 푸디아트모코 교수와 스리얀토 육군 소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10월 15일(목) 차관 및 주요 국가기관 수장 등 7명의 신임 고위 공직자를 정식 임명했다. (Foto: Sekretariat Presiden)

이번 인사는 메라 푸티 내각 차관 임명을 규정한 대통령령 제42/M호를 비롯해 국가재난방지청장 임면(대통령령 제113/P호), 국가이탄지·맹그로브 관리청 정·부청장 임명(대통령령 제43/M호)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 핵심 요직의 진용을 새롭게 갖춘 프라보워 행정부는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국방력 현대화와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6 ⚡ Vitamin B12 ⚡ Mengandung Taurin (83 mg / 250 ml)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HALAL INDONESIA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프라보워 대통령, 산불 진화 '외국 지원' 전격 수용… 세부 절차는 재난방지청 조율 중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국 내 여러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산불 및 토지 화재(카르후틀라·karhutla) 진화를 위해 인접 우방국들의 지원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아르르만타 나타시르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15일 자카르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제1위원회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인접국들의 지원 수용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현재 실무 수준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주무 기관인 국가재난방지청(BNPB)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지원을 제안한 국가의 명단과 지원 규모, 현장 투입 방식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아르르만타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접 진화 작업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대응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따른 지시와 지침도 매우 단호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재 피해가 심각한 6개 주를 중심으로 약 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아울러 물폭탄 투하용 헬리콥터와 인공강우 유도 항공기 등 가용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경성(越境性) 연무 문제와 관련해 아르르만타 장관은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 조정센터(ACC THPC)의 기준에 따라 산불 대응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매일 진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핫스팟(화재 열점)의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무 총괄을 맡은 신임 크리스토메이 시안투리 BNPB 청장(육군 중장)은 해외 지원 수용에 앞서 국내 자원 역량을 먼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르르만타 나타시르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Menteri Luar Negeri Arrmanatha Christiawan Nasir (Foto Istimewa)

크리스토메이 청장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임명식 후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산을 먼저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울 수 있는 해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 진화는 BNPB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싱가포르, 인니발 '월경성 연무' 사태에 법적 대응 검토… "원인 기업에 엄정 조치"



싱가포르의 대기 질은 심각한 수준Situasi kabut asap di Distrik Bisnis Pusat Singapura (9/10/2026). (Sumber: David Hu/Associated Press)

인도네시아의 산불 및 토지 화재로 인해 유독성 연무(Haze)가 국경을 넘어 유입되자, 싱가포르 정부가 대기 오염을 유발한 책임 기업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레이스 푸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장관은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집한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2014년 제정된 '월경성 연기 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에 의거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수집·평가하는 단계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경 밖에서 화재를 일으켜 싱가포르의 오염물질기준지수(PSI)를 24시간 이상 '건강에 해로움'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 기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7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 벌금 상한액은 최대 200만 싱가포르달러(약 19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대기 질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싱가포르 전역의 PSI는 125~206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부 지역은 200을 넘어서며 대기 질 '매우 건강에 해로움' 단계에 진입했다. 현지 기준상 PSI가 300을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분류돼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다. 유독성 연무가 수주째 지속되면서 시중에서는 샤오미, 다이슨 등 주요 업체의 공기청정기가 잇따라 품절되고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등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푸 장관은 법적 대응 검토와는 별개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산불 진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엘니뇨로 인한 극심한 건조 기후 속에서 사태 해결이 복잡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측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나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는 향후 증거 검토를 바탕으로 법 집행을 검토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다자 협력 채널을 통해서도 월경성 연기 오염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 부패방지위, 국가재난방지청 압수수색… '재난 기금 비리' 5명 입건



16일 자카르타 KPK(부패방지위원회) 기자회견에서 KPK 태스크포스(TF) 팀원들이 국가재난방지청(BNPB) 재난 기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압수 물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Foto: investortrust/ M-4.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재난 대응 예비기금(DSP)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마드 타우픽 후세인 KPK 수사국장 대행은 16일 자카르타 메라 푸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수하리얀토 전 청장(육군 중장) 집무실을 비롯한 BNPB 내 주요 부서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하리얀토 전 청장이 해임되고 후임인 크리스토메이 시안투리가 임명되기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현금 33억 5,000만 루피아를 비롯해 미화 7,500달러, 싱가포르 달러 9,000달러 등 주요 외화와 금괴 56개(총 133g), 금 예금 192g을 확보했다. 여기에 약 11억 루피아 규모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총 54억 7,000만 루피아(한화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자산과 관련 회계·계약 문서를 압수했다.

앞서 KPK는 지난 13일 긴급 체포 작전(OTT)을 단행해 루스티안 수석사무총장을 포함한 관계자 15명을 연행한 뒤, 이 중 핵심 피의자 5명을 부패범죄근절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KPK에 따르면 BNPB는 비상사태 시 신속한 조달을 명분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했으나, 이 과정에서 약 1,480억 루피아 규모의 계약 상당수가 비마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특정 업체들에 몰린 정황이 포착됐다.

당국은 조달 과정에서 집행된 재난 대응 예비기금 일부가 비마 측으로 흘러 들어가 타 법인의 지분을 사들이는 등 사적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비마는 관계사를 통해 특정 기업 주식 1억 5,040만 주(약 309억 8,000만 루피아 상당)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KPK는 이번 비리 의혹을 '이해충돌'과 '뇌물 수수'의 두 갈래로 나누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비마 외에도 가브리엘 푸르와카 시기트 원조·비상관리국 부국장 겸 계약담당관, 리차드 에를랑가 전 전문위원, 그리고 민간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GV | 2026년 10월 20일 ~ 26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이번 주 상영!

10월 21일



*액션
*한 장리우드 주연 배우의 커리어가 범죄자에 의해 위협이 심하게 망가지면서 좌절한다. 기적적으로 옛날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최첨단 치료를 받은 후, 그는 복수를 결심한다.

10월 24일



*음악
*좋아하는 HYBE 아티스트의 콘서트 영화를 독특한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즐기는 경험. 대형 스크린으로 만나보자.

10월 25일



*음악
*BTS 라이브 부앙이 처음으로 남미에서 생중계된다. 이 대형 콘서트는 경기장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담아낸다.





커밍 쑨 in CGV

10월 30일



*드라마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은퇴자가 인기 패션 회사의 인턴으로 다시 일하기로 결심한다. 유명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판 리메이크 작품.

10월 31일



*음악
*BTS의 라틴 아메리카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형 콘서트로, 브라질 경기장의 열기와 에너지를 가득 담아낸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종합주가지수(IHSG) 폭락에 하원 긴급 개입… 시장 구조 개선 강력 촉구 “의회 차원의 엄중 감시 지속할 것”



2026년 10월 16일 개장 직후 종합주가지수(IHSG) (Foto: Aldhi Candra Setiawan/IMG)

[자카르타=한인포스트]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의 인도네시아 시장 재분류 검토 착수 여파로 인도네시아 증시가 사상 초유의 폭락 사태를 맞았다. 이에 인도네시아 입법부가 금융당국과 증권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고강도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인도네시아 하원(DPR) 부의장은 2026년 10월 16일(금) 자카르타 소재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를 전격 방문하여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BEI와 금융감독청(OJK)을 향해 MSCI를 비롯한 글로벌 평가기관의 지적 사항을 전면 수용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격려 방문을 넘어 입법부와 금융당국, 사법기관 수뇌부가 총집결한 비상 대책 회의의 성격을 띠었다. 현장에는 프리데리카 위디사리 데위(Friderica Widyasari Dewi) OJK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로산 로에슬라니(Rosan Roeslani) 투자부 장관 겸 투자관리청(BPI) 다난타라 최고경영자(CEO), 수유디 아리오 세토(Suyudi Ario Seto) 경찰청장 등 경제·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하원, 당국에 ‘구조 개혁 완수’ 압박… “글로벌 기준 부합해야”

다스코 부의장은 회의 직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하원은 일상적인 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이미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조율을 마쳤다”며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예의주시해 왔으며, 모니터링을 거듭한 끝에 거래소 측에 강도 높은 지속적 개선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체질 개선 작업은 글로벌 투자 지수 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MSCI 등 국제 금융기관들의 우려와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스코 부의장은 당초 202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MSCI의 정례 검토 일정보다 발표가 앞당겨진 점을 짚으며,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방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만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JK,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 개혁 진행 중”… 이상 급등주 정밀 조사

금융당국 또한 시장의 불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리데리카 위디사리 데위 OJK 이사회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OJK는 자율규제기관(SRO)들과 공조하여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혁안은 이미 지난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상태다.

프리데리카 의장은 “주식 소유 공시 기준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강화해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투자자 분류 체계를 9개 군에서 39개 군으로 세분화했다”며 “이와 함께 단계적인 유동주식비율(free float) 상향 조치 등을 단행함으로써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프리데리카 의장은 “규제 집행력 담보가 핵심 과제임을 잘 알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다수의 행정 제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DSSA, BRMS, CUAN 등 3개 주요 상장사에 대해서는 하산 파우지(Hasan Fawzi) OJK 자본시장 감독 담당 집행이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 경과와 후속 조치를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MSCI의 기습 발표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전해진 조기 발표에 대해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MSCI의 발표에 떠밀려 급조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준비해 온 정규 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IHSG, 개장 직후 8%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장중 10%대 붕괴

이날 인도네시아 증시는 그야말로 패닉 장세를 연출했다. 2026년 10월 16일 개장 직후 종합주가지수(IHSG)는 전 거래일 대비 469.86포인트(8.01%) 폭락한 5,393.92로 출발했다. 지수의 유례없는 수직 낙하에 거래소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분간 전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거래 정지(서킷브레이커·Trading Halt) 조치를 전격 발동했다.

그러나 패닉 셀링(공황 매도)은 진정되지 않았다. 거래 재개 이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며 지수는 낙폭을 더욱 키웠다. 결국 1부 장 마감 시점에 IHSG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630.78포인트(10.76%) 곤두박질친 5,233.00을 기록하며 증시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번 폭락의 직접적인 뇌관은 MSCI의 ‘강등 경고’였다. MSCI는 2026년 6월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접근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 분류를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MSCI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행 신흥시장(Emerging Market)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흥시장에서 독립시장으로 격하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대규모 유출이 불가피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MSCI 지위 강등 경고에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패닉'… 루피아화, 달러당 18,000선 붕괴

- 루피아화 가치 급락, 달러당 18,027루피아 마감… 심리적 마지노선 무너져
- 전문가 "외인 이탈 지속 시 달러당 18,500루피아까지 추가 하락 위험"
- MSCI, 신흥시장에서 '독립시장' 강등 검토 착수… 거버넌스 및 시장 접근성 논란



2026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개월 환율 그래프

[자카르타=한인포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제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주식시장 내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것은 물론, 통화 가치마저 급락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트윈 마켓 쇼크(주식·외환 동반 충격)'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지시간 10월 16일(금요일), 주말 마지막 거래일을 맞은 외환시장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18,000루피아 선을 하회하며 장을 마감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물 시장에서 루피아화 환율은 전일 대비 0.50% 상승(통화 가치 하락)한 달러당 18,027루피아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0.71% 하락한 수치다. 이전 거래일 종가인 달러당 17,938루피아와 비교하면 80루피아 이상 가치가 떨어졌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고시하는 기준환율(JISDOR) 역시 급격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BI 기준환율은 달러당 18,052루피아까지 밀려나며 주간 낙폭이 0.94%에 달했다.

외환 및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루피아화 급락의 주된 도화선으로 MSCI의 인도네시아 시장 지위 강등 검토 소식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MSCI는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투자 접근성 제한과 고질적인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이유로, 현행 '신흥시장(Emerging Market)' 지위를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MSCI는 그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높은 주식 집중도, 시장 내 담합 매매(시세 조종) 의혹,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한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최근 공식적인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재분류 제안에 대한 시장 의견 수렴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이어지며, 최종 결정은 늦어도 2027년 6월 3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비록 최종 결정까지 시일이 남아 있으나,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대규모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독립시장 강등'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는 극에 달했다.

두파이낸셜퓨처스의 수석 분석가는 "이번 주 루피아화 약세의 핵심 동인은 국내 증시를 둘러싼 위험 회피 심리"라며 "최근 글로벌 채권 매도세가 다소 진정되고 미국 달러 지수(DXY)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루피아화가 독자적인 약세를 나타낸 것은 MSCI 강등 우려에 따른 자본 유출 압력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세와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우려도 루피아화 매도세를 부채질했다. 시장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외환·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적인 환율 상승(통화 가치 하락) 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안달라스 대학교의 경제학자 샤프루딘 카리미는 "MSCI 강등 제안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가 장기화하고,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루피아화 가치는 달러당 18,200~18,500루피아 선까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흥시장 지위 박탈이라는 초유의 경고장을 받아 든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업계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통화 약세가 장기화되며 국가 거시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제부/ 편집부 종합)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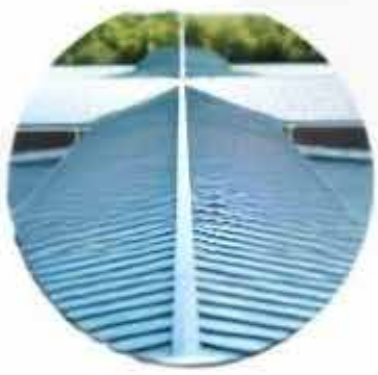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카라왕 '우시(Whoosh)' 고속철역 진입로 2개 노선 확충… 산업단지·주거지 연결성 대폭 개선

- KCIC, 트란스 헥사 카라왕 및 델타마스 잇는 신규 진입로 본격 건설 착수
- 치베엣 교량 경유 노선 신설로 기존 우회 불편 해소… 이동 시간 대폭 단축
- 자카르타 할림역에서 카라왕역까지 15분 주파… 인근 산단 근로자 · 비즈니스 수요 견인 기대

인도네시아의 첫 고속철도 '우시(Whoosh)'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 컨소시엄(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 이하 KCIC)이 서부자바주 카라왕 우시 고속철도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진입로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산업·비즈니스 벨트 및 대규모 주거단지와의 연결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고속철도의 서비스 수혜 범위를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CIC는 카라왕역과 서부자바주의 핵심 경제 구역인 '트란스 헥사 카라왕(Trans Heksa Karawang)' 및 '델타마스(Deltamas)' 지역을 잇는 2개의 신규 도로 진입로를 개발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본 사업은 현재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돌입한 상태이며, 중앙정부 및 유관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개발 노선은 '트란스 헥사 카라왕' 지역을 관통하는 약 1.6km 구간이다. 해당 도로는 기존 진입 경로 대비 폭을 넓히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한층 원활하고 쾌적한 접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두 번째 진입로는 치베엣(Cibeet) 다리를 경유하여 델타마스 지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약 3km 길이의 노선이다. 이 도로는 Bekasi군의 주요 산업단지, 상업 비즈니스 지구, 그리고 대규모 주거지역을 카라왕 고속철도역과 직결하는 핵심 간선 도로망 역할을 맡게 된다.

그간 델타마스 및 인근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은 고속철도역으로 직접 이어지는 전용 도로망이 없어 카라왕 바랏(Karawang Barat) 톨게이트를 크게 우회해야 하는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 증가와 교통 체증이 수반되었고, 이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는 비즈니스 승객과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신규 직통 도로망이 완공되면 인근 산업단지와 역 간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물류 및 출퇴근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에바 차이루니사(Eva Chairunisa) KCIC 일반관리 기업사무국장은 14일 서부자바주 반둥에서 배포한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신규 진입로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은 물론, 카라왕과 베카시군 일대 산업단지 내 수많은 근로자와 기업인들에게 최적의 이동 선택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바 국장은 "역 접근성 개선을 통해 승객들이 고속철도역으로 이동하거나 하차 후 최종 목적지로 환승하는 과정 전반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과거 역 접근에 오랜 시간과 거리가 소요되어 이용을 주저했던 배후 수요층을 흡수함으로써 우시 고속철도의 승객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라왕 우시 고속철도역은 산업단지 근로자, 기업 비즈니스 출장자, 도시 간 이동 관광객 등 일일 평균 약 1,000명의 이용객을 꾸준히 수용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중심 시발역인 할림(Halim)역에서 카라왕역까지는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단 15분만에 주파가 가능하며, 현재 매시간 1회꼴로 정기 운행되고 있어 수도권과 서부자바주 산업단지 간의 강력한 일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부자바주 카라왕 우시 고속철도역 Stasiun Whoosh Karawang Foto: KCIC

에바 국장은 "연결성 개선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신흥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 지역의 잠재 수요층에게 카라왕역의 접근 문턱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KCIC는 인도네시아 대중의 이동 편익을 극대화하고 우시 고속철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승객 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역세권 인프라와 접근성 강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고 시속 350km로 질주하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우시'는 자카르타에서 서부자바주의 중심지 반둥에 이르는 핵심 경제 축을 총 4개의 정차역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카라왕역 운영 상황 및 열차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정보는 KCIC의 공식 왓츠앱(WhatsApp) 메신저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印尼 증시 개장 직후 8%대 폭락… '서킷브레이커' 전격 발동

- MSCI, 印尼 '신흥시장'서 '독립시장'으로 강등 절차 공식 착수
- 불투명한 지배구조 · 거래 왜곡 지적… 사상 최고치 대비 41% 주저앉아
- 美 PPI 깜짝 급등에 통화 긴축 공포까지… 대외 악재 겹쳐 '패닉 셀'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이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국가 등급 강등 추진이라는 초대형 내부 악재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이라는 대외 악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대표 주가지수가 개장 직후 8% 넘게 곤두박질치는 등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에서 종합주가지수(IHSG)는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전 거래일 종가(5,863.78) 대비 469.86포인트(8.01%) 폭락한 5,393.92로 직행했다. 이에 따라 BEI는 즉각 시장 안정화 조치인 서킷브레이커(Trading Halt)를 발동하고 주식 매매를 30분간 전면 중단했다.

BEI 규정(제Kep-00002/BEI/04-2025호)에 따르면 지수가 8% 이상 급락할 경우 1차로 30분간 거래가 정지된다. 추가 하락으로 15%를 넘어서면 2차로 30분간 정지되며, 20% 이상 폭락 시에는 금융감독청(OJK) 승인을 거쳐 당일 매매를 조기 종료하거나 거래를 무기한 중단(Trading Suspend)할 수 있다. 이날 자카르타 자동매매시스템(JATS) 기준으로 오전 8시 58분부터 9시 28분까지 거래가 멈춰 섰으며, 당국은 극단적인 투매 장세 속에서 가격 발견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MSCI, 자본시장 지배구조 미흡 질타… '신흥시장' 지위 박탈 위기

이번 투매 사태의 결정적 뇌관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산출 기관인 MSCI의 강등 경고였다. 뉴욕 시간 기준 15일, MSCI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의 분류를 기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베트남 등이 속한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공식 협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핵심 추종 벤치마크인 신흥시장 지위에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불가피하다. MSCI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자본시장 개혁 조치가 실질적이고 일관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소유 구조의 불투명성 ▲소수 대주주로의 지분 집중 ▲시장을 왜곡하는 조직적 거래 관행 의혹 등을 핵심 결함으로 꼽았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1% 초과 주주 명부 공개, 투자자 세부 분류, 유동주식비율(free float) 15%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하며 개선을 꾀했으나, 글로벌 기관들의 불신을 잠재우지 못했다. MSCI는 "시장 지배구조와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 입증되지 않는 한 강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종 결정은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 수렴(2027년 4월 30일 마감)을 거쳐 늦어도 2027년 6월 3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 연초 9,134 사상 최고치에서 41% 추락… 깊어지는 '지배구조 리스크'

인도네시아 증시의 위기는 올 초부터 단계적으로 누적되어 온 '예고된 악재'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IHSG는 올해 1월 20일 사상 최고치인 9,134.70을 기록하며 장밋빛 전망을 키웠으나, 불과 일주일여 뒤인 1월 28일 MSCI가 지수 변경을 동결하면서 서킷브레이커를 맞았다. 당시 지수는 하루 만에 7.35% 급락했으며, 이튿날인 1월 29일에도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재발동되며 7,400선까지 위협받았다.

이후 6월 연례 검토에서도 경고장을 받은 인도네시아 증시는 10월 들어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지난 12일 2.59% 하락한 데 이어 15일에도 1.33% 빠진 5,863.78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날 8%가 넘는 추가 폭락이 이어지며, 지수는 1월 기록한 역사적 고점 대비 무려 41% 증발했다. 연초 대비 기준으로도 38%나 폭락하며 신흥국 자산 가운데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美 PPI 깜짝 급등에 긴축 공포 가세… 신흥국 위기론 번지나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 역시 패닉 셀을 부추겼다. 전날 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1.3% 급등해 시장 예상치(0.6%)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3% 치솟으며 전망치(5.3%)를 대폭 상회했다. 앞서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전년 대비 3.7% 상승해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Logo

미국의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재차 반등세를 보이자, 연방준비제도(Fed)가 고금리 기조를 장기화하거나 추가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자체적인 제도 리스크까지 불거진 인도네시아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우선 청산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지 금융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증시의 이번 폭락은 취약한 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펀드의 실망감과 미국의 긴축 장기화 공포라는 대내외 악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라며 "당국이 해외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투명성 제고 방안과 명확한 자본시장 쇄신책을 신속히 내놓지 못할 경우, 자금 유출 압력은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인도네시아 경찰, 주가 급락 속 자본시장 불법행위 전면 수사… 범죄수사국(Bareskrim) 전격 투입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IHSG)가 급락하며 증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경찰청이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와 범죄 혐의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디 아리오 세토(Suyudi Ario Seto)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범죄 혐의 대응을 위해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전문 수사팀을 현장에 전격 투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하원(DPR) 부의장, 로산 로에슬라니(Rosan Roeslani) 다나타라(Danantara) CEO, 금융감독청(OJK) 고위 관계자들과의 합동 회동 직후 나왔다. 최근 인도네시아 증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재조정 관련 센티멘트로 인해 거센 매도 압력을 받아왔다.

수디 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불법 행위 및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와 고발을 접수함에 따라 Bareskrim 수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증거 수집을 철저히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는 자본시장 내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수사 대상에는 불법에 연루된 증권사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가 포착된 개인 역시 예외 없이 포함된다"며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 수유디 아리오 세토 경찰청장, 로산 다난타라 CEO, 프리데리카 OJK위원장, 수프미 다스코 하원의장, 도니 오스카리아 국영기업청장, 하산 파우지 자본시장·파생상품·감독청장이 2026년 10월 16일 증권거래소(IDX) 건물을 방문했다. (Foto: HO Istimewa)

금융당국, DSSA·BREN·CUAN 등 3개사 시세조종 및 부정배정 적발… 대규모 과징금 처분

사법 당국의 수사에 앞서 금융감독청(OJK)은 이미 주요 상장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 왔다. OJK는 지분 집중도가 높은 61개 종목 중 31개사를 집중 점검한 결과, 주가 조작 및 시장 오인 유발 행위를 저지른 3개 상장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PT 디안 스와스타티카 센토사(DSSA), PT 바리토 리뉴어블스 에너지(BREN), PT 페트린도 자야 크레아시(CUAN)다.

하산 파우지(Hasan Fawzi) OJK 자본시장·파생금융상품·탄소시장 감독 총괄 집행이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DSSA 주식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위반한 시세조종 행위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OJK는 12명의 증권사 임원과 15명의 개인, 11개 외국 법인을 소환 조사했으며, 일부 회원사를 통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주가 띄우기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 임원의 영업 인허가를 정지했다.

또한 공모 절차에서 위법이 확인된 BREN과 CUAN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07조 위반을 적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공모 당시 주식이 지배주주 측에 돌아가도록 사전에 계획했으며, 관계자들이 신원을 숨긴 채 대규모 물량을 배정받아 유통 물량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OJK는 이들 3개사에 대해 행정 제재를 확정하고 DSSA에 1조 5,000억 루피아, BREN에 5,000억 루피아, CUAN에 1,000억 루피아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프리데리카 위디아사리 데위(Friderica Widyasari Dewi) OJK 이사회 의장은 "현재 OJK와 유관 시장운영기관(SRO)들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ratama 그룹 2026년 공채모집공고

PT. Pratama Abadi Industri 는 1989년 설립되어 36여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이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단일기업으로는 Nike 운동화 최대 생산업체로, 연간 4천만족의 생산 Capacity 와 대규모 종업원을 보유하여 Tangerang, Sukabumi, Brebes 및 Garut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화 제조 관련 금형 등 자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원 수 :** 43,000 여명

■ **설립일 :** 1989년

■ **업종 :** 신발제조업

■ **근무처 :** PRATAMA 그룹 (브레베스, 수까부미, 가룻)

■ **채용 분야 :**

- Bottom: IP, CP/CMP, Outsole, PU
- 생산: 재단, 재봉, 준비, 제화"

■ **채용 조건 :**

해당경력 10년 이상
인니어 가능자, 해외거주 경험

■ **희망 임금 수준 :** 채용 시 협의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자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택,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제출기한 :** ASAP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kb.lee@pratam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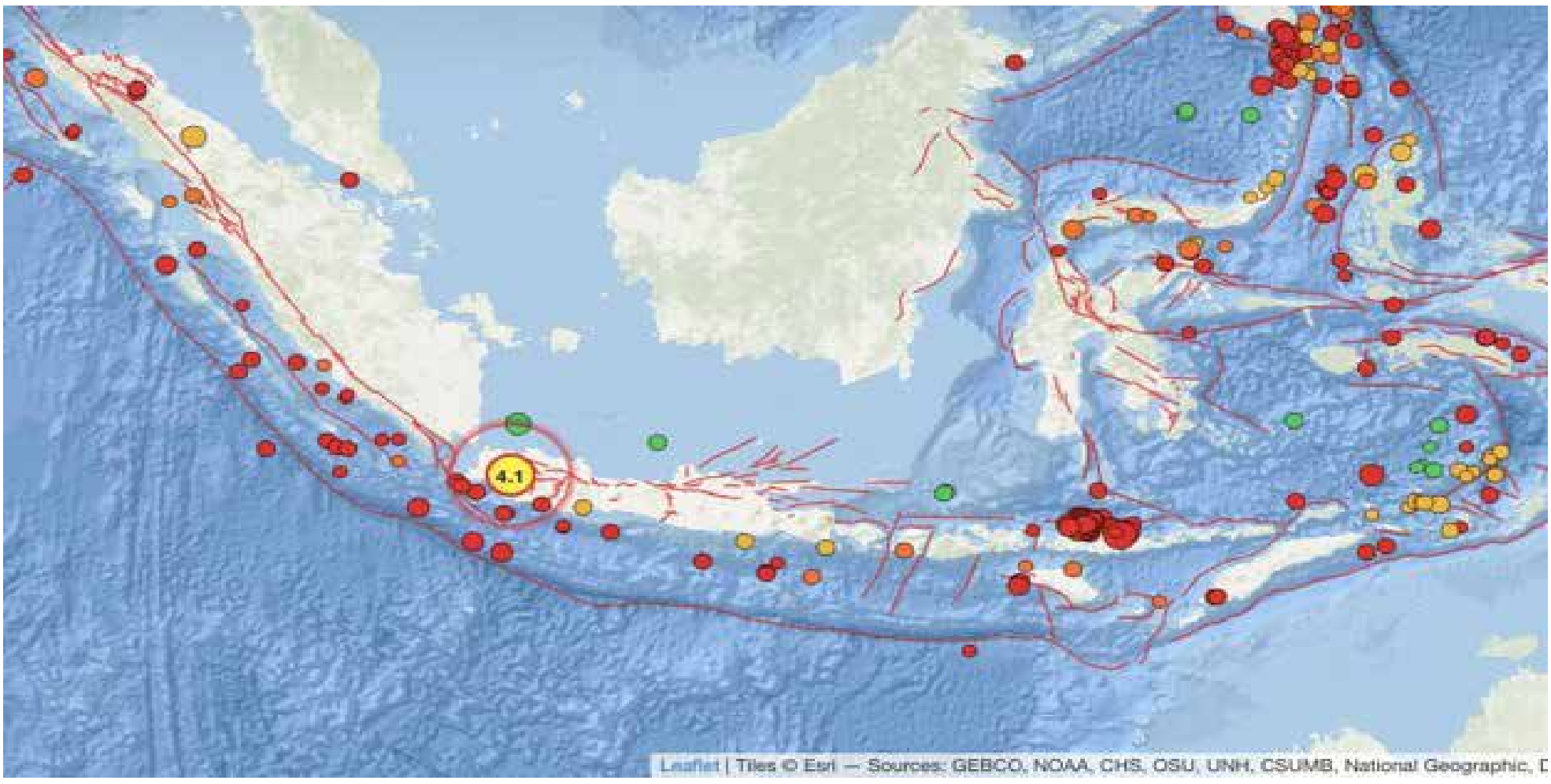
■ **선발 절차 :**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경영진 면접
- 건강검진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생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00 ~ 17:00

■ **지원 방법 :** 이력서 이메일 발송

인도네시아 보고르 남서쪽서 규모 4.1 지진 발생… 진원 깊이 5km



Gempa di Bogor.(BMKG)

10월 15일(목) 오후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보고르시 및 인근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서부 인도네시아 표준시(WIB) 기준 이날 오후 5시 58분경 발생했다. 진앙은 보고르시 남서쪽으로 약 26킬로미터 떨어진 육지 지역(남위 6.73도, 동경 106.61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5킬로미터로 비교적 얕은 편이다.

BMKG는 "지진의 진앙은 보고르 남서쪽 26km 지점의 육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수치 및 분석 결과는 잠정 데이터로 추가 관측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으로 보고르군 파미자한(Pamijahan)과 카반둥안(Kabandungan) 등 진앙 인근 지역에서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IV 등급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MMI IV 등급은 실내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진동을 뚜렷하게 감지하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주요 시설물의 파손, 구체적인 지진 유발 원인 등은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

기상 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BMKG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되는 최신 정보와 안전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로봇이 아니다”… 발리 주유소 직원, 주지사 앞 ‘24시간 영업 요구’에 눈물로 항의

발리 전역을 덮친 유류 품귀 사태 속에서 지방 정부가 내놓은 ‘주유소 24시간 영업’ 지침을 두고 현장 근로자들의 반발과 과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던 한 여성 주유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주지사 면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본적 노동권을 호소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 14일 수요일 밤, 덴파사르 디포네고로 길에 위치한 54.801.48번 주유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주초부터 이어진 페르탈라이트(Pertalite) 휘발유 품귀 현상과 이에 따른 긴 주유 대기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

현재 발리 주요 지역은 연료 공급 차질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젬브라나와 바둥 응우라라이 공항 인근 등에서는 주유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운전자가 속출했다. 뙤약볕 아래 장시간 대기가 이어지며 젬브라나 수디르만 길 주유소에서만 주민 8명이 탈진해 쓰러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이에 경찰 의료팀(Sidokes)이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하고 긴급 보건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사태가 악화하자 주정부는 대기열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덴파사르 및 바둥 지역 주유소에 24시간 연장 운영을 지시했다. 그러나 사전 인력 충원 없는 일방적 조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부담으로 전가됐다.

소셜 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격무에 시달리던 해당 주유소의 한 여성 직원은 코스테르 주지사를 향해 “저도 지쳤고, 저희는 로봇이 아닙니다, 주지사님. 저도 노동자이지만 제 권리가 있습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현장에 있던 동료와 관계자들이 황급히 해당 직원을 진정시키는 장면도 함께 담겼다.

해당 주유소 관리자인 트리아(Tria) 씨는 갑작스러운 24시간 운영 전환 요구에 직원들이 패닉에 빠졌다고 전했다. 본래 이 주유소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12명의 직원이 2교대(각 조 5명)로 운영해 왔다. 특히 현장 운영 인력 전원이 여성이며, 이 중에는 수유 중인 근로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급증한 대기열로 인해 자정을 훌쩍 넘겨 일하는 등 이미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상태였다.

트리아 관리자는 15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갑작스러운 지침에 모두가 크게 당황했다. 직원들이 지쳐 교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가 발리에서 연료(BBM) 대기 줄 한가운데에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Ig/@dewaswam)

현장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대응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15일 이번 사태에 대해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하며, 직원의 감정적 폭발은 단순한 신체적 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평하지 말고 소비자를 응대하라고 말했다. 피곤하더라도 응대해야 하며, 피곤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록적인 연료 부족 사태로 인한 민생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바탐 대규모 정전 사태 속 PLN 수장 전격 교체… 다르마완 해임·수로소 신임 사장 선임

- 14일 임시주주총회서 경영진 개편 결정…신임에 수로소 이스난다르
- 사측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인사"…정전 사태 문책성 의혹엔 선 그어
- 다난타라, 전력 품질 안정화 위해 자회사 'PLN 바탐' 직접 인수 추진



PLN 다르마완 프라소조(Darmawan Prasodjo) 사장(가운데)이 PLN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원진과 함께 배석해 있다. (23/5/2026). Foto: Dok. PLN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 PT PLN(Persero)의 최고경영자(CEO)가 전격 교체됐다. 리아우제도주 바탐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발생한 이틀간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단행된 조치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PLN은 지난 10월 14일 밤 임시주주총회(RUPSLB)를 열고 다르마완 프라소조(Darmawan Prasodjo) 사장을 공식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회사 주요 경영진과 이사회, 국영기업조정청(BP BUMN)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영진 개편안을 의결했다.

신임 사장으로는 수로소 이스난다르(Suroso Isnandar) 전 프로젝트 관리·신재생에너지 부문 이사가 선임됐다. 안디 아리프(Andi Arief) PLN 사외이사는 언론을 통해 "다르마완 사장이 물러나고 수로소 신임 사장이 취임하게 됐다"며 최고경영진 교체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인사는 리아우제도주 일대가 극심한 전력난으로 혼란을 겪는 시점에 이뤄졌다. 지난 10월 12일 시작된 전력 공급 중단으로 바탐 지역에서는 수십 시간 동안 암흑이 이어졌으며, 송전망이 연계된 빈탄과 탄중피낭 지역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14일 오전까지도 일부 지역의 전력 복구가 지연되면서 식수 공급과 통신망이 마비되는 등 시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가 잇따랐다. 앞서 PLN 바탐 측은 스쿠팡군 세이 하라판 변전소(150kV)에 난입한 야생 원숭이로 인해 장애가 촉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사측은 이번 교체가 정전 사태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디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전 관련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다르마완 전 사장이 2019년 부사장, 2021년 사장 취임 이후 장기간 재임해 온 데 따른 정례적 순환 인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간 혁신을 주도한 전임 사장의 공로를 치하하며 신임 사장 체제하에서도 경영 혁신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이번 정전 사태를 계기로 국부펀드 다난타라 인도네시아(Danantara Indonesia)는 PLN의 자회사인 'PLN 바탐'을 직접 인수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다난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정전 피해를 입은 주민과 입주 기업에 유감을 표하며 "PLN 바탐을 다난타라 직속으로 편입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항(FTZ)인 바탐에 독자적 전력망을 운영해 온 PLN 바탐은 국가 보조금 없이 운영되는 핵심 인프라 기업이다. 다난타라 측은 바탐이 국가 전략적 투자 중심지인 만큼 지배구조 개편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경제 중심지로서의 전력 지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발리 주정부, 극심한 주유 대란에 3일간 '재택근무·원격수업' 전격 단행

인도네시아 발리주가 극심한 연료 공급난으로 주유소마다 장시간 대기 행렬이 이어지자, 사태 수습을 위해 공공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3일간 재택근무(WFH) 및 원격 수업을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발리 주정부는 14일 공식 공문(B.39.000.8/48412/TLK/B.ORG)을 통해 2026년 10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사흘간 전면적인 근무 체제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 중앙정부 산하 기관을 비롯해 지방정부, 국영·지방공기업, 그리고 도내 전역의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모두 적용된다.

데와 마데 인드라 발리주 사무총장은 서면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PT Pertamina)의 신속하고 안전한 연료유(BBM) 공급과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도로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주유소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고 유조차의 보급망 이동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대민 공공서비스, 비상 대응, 치안 및 보안 부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장 정상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마데 인드라 사무총장은 "재택근무 기간에도 공직자의 생산성과 책임감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 및 교육 과정의 효율성을 유지해 대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리 전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연료 대란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현재 발리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휘발유인 RON 90 '페르탈라이트'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일반 휘발유인 '페르타맥스 터보' 등 비보조 연료를 구매하려는 차량들까지 수시간씩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지난 13일 덴파사르 페르타미나 본사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정유 저장기지와 주요 주유소의 운영을 24시간 체제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페르타미나 측은 연료 운송 인력을 대폭 확충했으며, 경찰은 유조차 긴급 호송 작전에 돌입했다. 주정부는 또한 군(TNI)과 경찰(Polri)의 협조를 요청해 주유소 질서 유지와 유통 경로 경비, 교통 정리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태 조기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가야성 중화요리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가야성에서 준비한

알곤이 짬뽕

톡톡 터지는 알과 부드러운 곤이
깊고 얼큰한 **해물 짬뽕**



예약 문의
081295094658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이민국-KCIC 맞손… '올 인도네시아' 플랫폼 반둥간 고속열차 예매 연동

- 입국 신고부터 육상 교통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외국인 승객 누적 94만 명 돌파… 서자바주 이동 편의 대폭 강화
- 헨다르삼 이민국장 "국민과 방문객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이어갈 것"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이민국(Ditjen Imigrasi)과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 운영사 PT KCIC(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외국인 입국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력에 따라 국제선 승객들은 정부 통합 입국 플랫폼인 '올 인도네시아(All Indonesia)'를 통해 자카르타-반둥간 고속열차 '우시(Whoosh)'의 티켓을 보다 손쉽게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이민국과 PT KCIC는 2026년 10월 16일(금), 자카르타 동부 할림에 위치한 KCIC 마케팅 갤러리에서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헨다르삼 마란토코(Hendarsam Marantoko) 인도네시아 이민국장과 드위야나 슬라맛 리야디(Dwiyana Slamet Riyadi) KCIC 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 연동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올 인도네시아' 플랫폼에서 전자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 외국인 관광객 및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는 시스템 내에 마련된 고속열차 티켓 예매 전용 링크로 즉시 연결된다. 기존에는 입국 승객들이 별도의 철도 예매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연계를 통해 반둥, 카라완그 등 서자바주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후속 여정을 입국 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헨다르삼 마란토코 이민국장은 서비스 개편 배경에 대해 행정의 영역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16일 배포된 공식 서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여행의 편리함이 출입국 심사대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인도네시아 영토에 발을 디딘 후에도 자국민과 외국인 방문객 모두가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합 서비스는 국제선 입국 절차라는 행정 서비스와 고속철도라는 현대적인 핵심 교통 인프라를 실용적으로 결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계 정책의 배경에는 고속열차 '우시'의 가파른 수요 증가세가 자리 잡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로 주목받은 우시는 개통 이후 2026년 7월까지 누적 승객 1,690만 명을 돌파하며 자카르타-반둥 구간의 핵심 대중교통으로 안착했다. 특히 2026년 8월 기준 외국인 탑승객 누적 건수는 94만 4,087건에 달해, 국제선 항공편과 서자바주 간의 육상 연계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기반이 된 '올 인도네시아' 플랫폼은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세관, 보건, 검역(CIQ) 등 입국 관련 필수 행정 절차를 단일 창구로 일원화한 디지털 시스템이다. 입국 3일 전부터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이 가능하며, 2026년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2,911만 9,141명에 달해 외국인 방문객의 필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국가 안보 및 출입국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협력도 병행한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전제로, 출입국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승객 정보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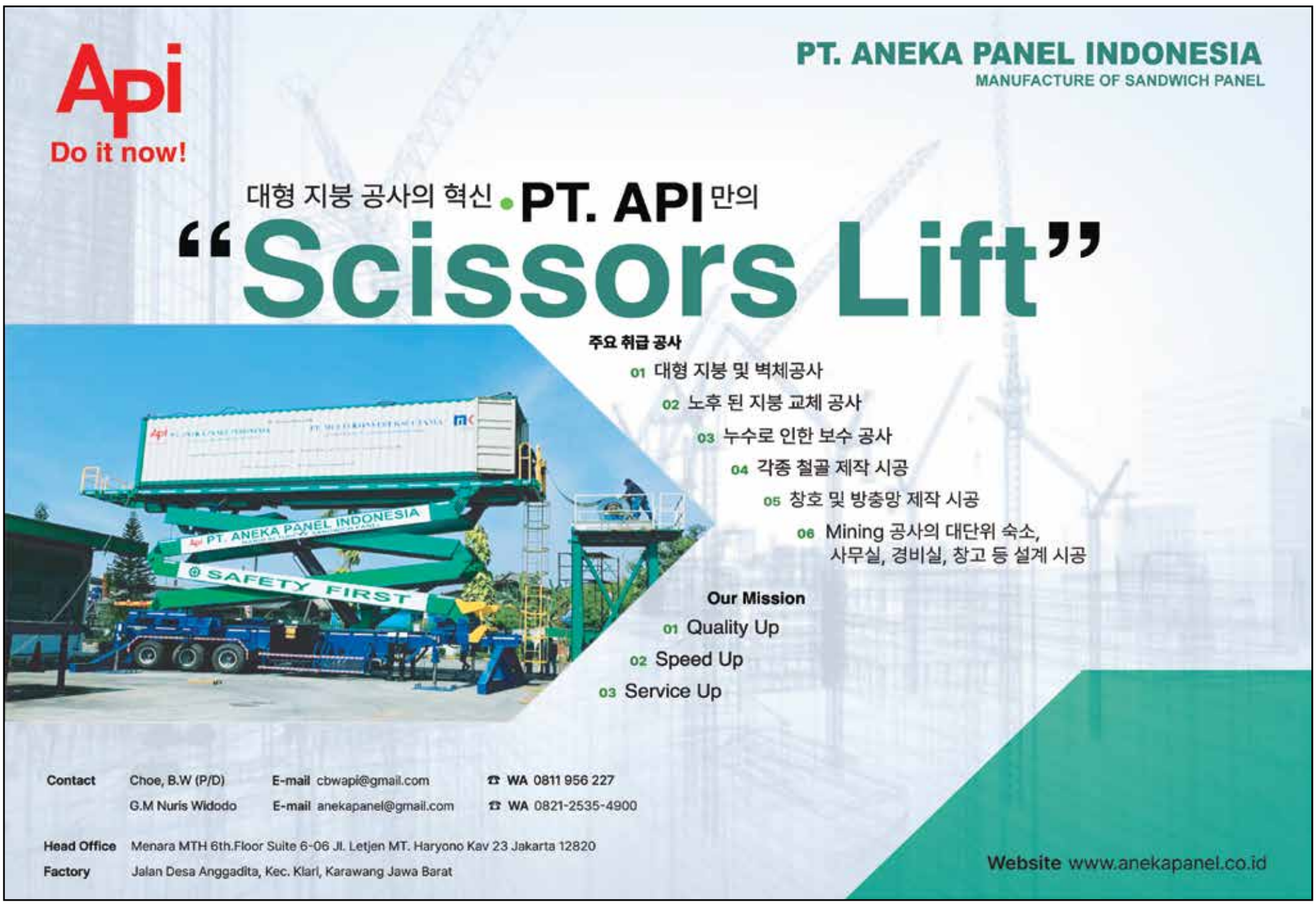


이민국 총국장 헨다르삼 마란토코(오른쪽)와 중국 고속철도 인도네시아(KCIC) 대표이사가 2026년 10월 16일(금) 업무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HO-Humas Ditjen Imigra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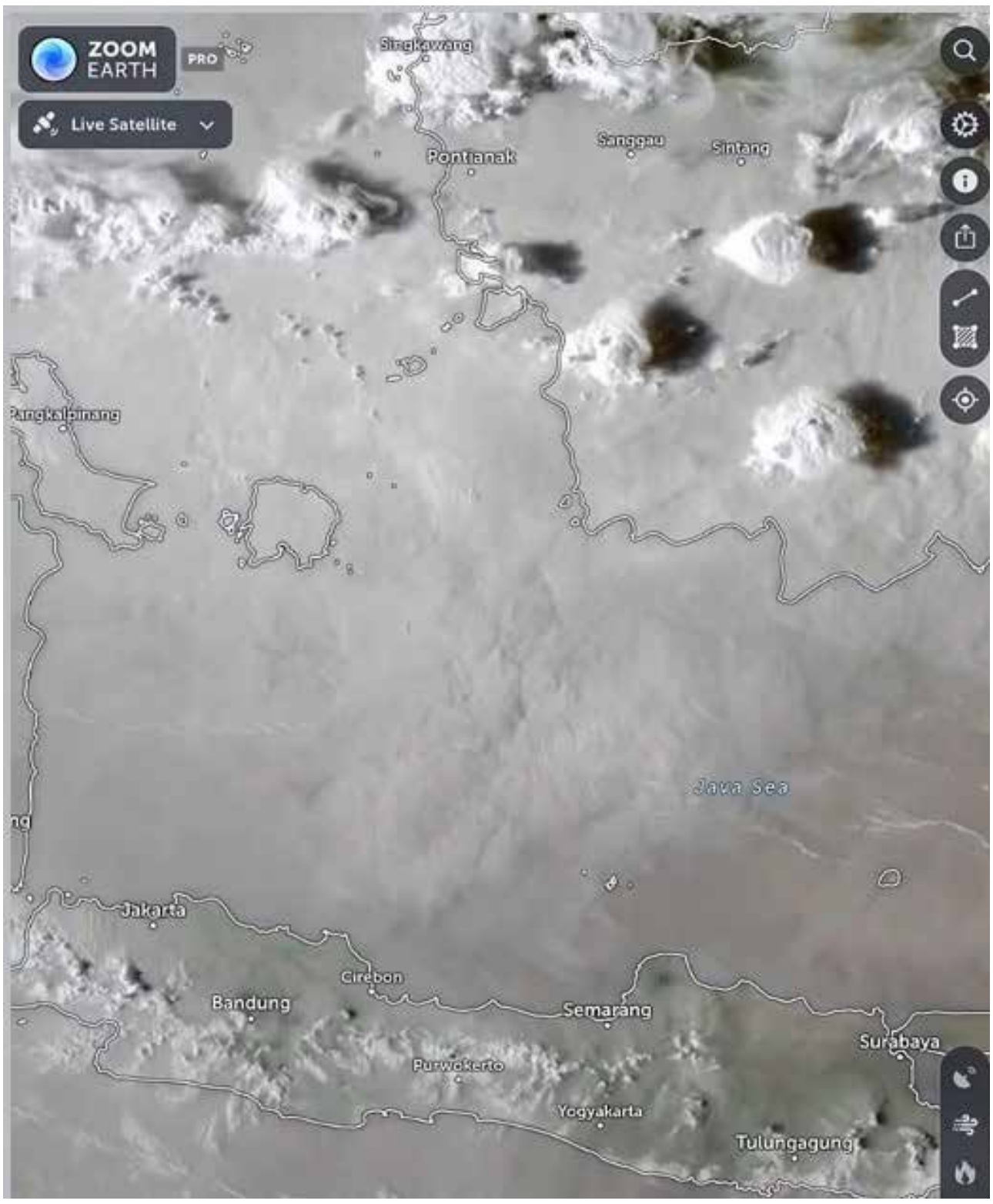
헨다르삼 국장은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 이민국(Imigrasi untuk Rakyat)' 비전을 구현한 실질적 결과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이민국'이라는 가치는 단순한 신기술 도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과 방문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동 과정을 더욱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만드는 등 입국부터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범부처 및 공공기관 간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반뜬·서자바 대기서 산불 연기 감지… 기상청, 마스크 착용 당부



자카르타 대기질 상황은 187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6.10.16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삼림 및 토지 화재(산불) 연기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수도권 상공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대기질 악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16일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구물리학청(BMKG)에 따르면, 히마와리-9(Himawari-9) 기상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자카르타 특별수도지역(DKI 자카르타)과 반뜬, 서자바를 포함한 전국 광범위한 지역의 상공에서 산불 연기 확산이 감지됐다.

위성 분석 결과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등 주요 도서 지역 대부분에서 연기 띠가 관측됐다. 이동 방향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자카르타, 반뜬, 서자바, 동자바 및 술라웨시 일대의 연기는 남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등지에서는 북서쪽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연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경을 넘는 연무(Transboundary Haze) 현상도 포착됐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의 연기가 말레이시아 반도와 싱가포르 방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반대로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연무가 인도네시아 남파푸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함께 확인됐다.

다만 BMKG는 상공의 연기 감지가 곧바로 지표면의 급격한 공기질 악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나 옥타비아 세티오와티 BMKG 제2지역 청장 권한대행은 "대기 안정도와 고도별 풍향·풍속, 지표면 관측치에 대한 정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자카르타의 대기질은 차량 및 산업 시설 등 도심 자체 배출원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위성 데이터와 현장 관측을 결합해 지속적으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공식 앱 등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질이 '나쁨' 수준에 이를 경우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에는 KF94, N95 등 분진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연무 노출을 피하고 실외 운동을 자제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또한 실내 환기를 제한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한편,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쓰레기 소각 등 추가적인 오염 유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 만달리카 모토GP 특수… 롬복 공항 여객 수 8만 2천여 명 기록

인도네시아 서누사텡가라(NTB)주 롬복의 자이누딘 압둘 마지드 국제공항(BIZAM)이 '2026 만달리카 모토GP' 특별 서비스 기간(5~13일) 동안 총 8만 2,689명의 여객을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지난 9월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공항 운영사인 PT 앙까사 푸라 인도네시아는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맞춰 75편의 추가 항공편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추가 항공편은 임시편 53회, 대형 기종 변경 6회, 전세기 8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바틱에어 등 5개 주요 항공사가 증편에 참여해 원활한 관람객 및 대회 관계자 수송을 도왔다.

대회 기간 중 공항 내 항공기 운항 횟수는 총 927회로 전년 대비 27.6% 늘었으며, 화물 처리량 또한 891.4톤으로 42.7% 급증했다. 공항 측은 단기간 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Zero Accident)' 운항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항 측은 대회 기간 동안 터미널을 전통 장식으로 꾸미고 전통 북과 악기 공연을 선보였으며, 지역 중소기업(UMKM) 제품 홍보 공간을 마련해 롬복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데 힘썼다.

아이딜 필립 쥴리안 공항 총괄 매니저는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롬복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 만달리카 모토GP를 앞둔 롬복 공항 (Foto: Istimewa)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주아세안 대표부 '2026 한-아세안 영화제' 자카르타서 성황리 개막
스크린으로 잇는 연대와 공감

- 주아세안 대표부, 10월 15~17일 자카르타 퍼시픽 플레이스 CGV서 개최
- 한·아세안 6개국 대표 장편 및 청년 영화인 육성 사업(FLY) 단편 상영
- 이철 대사 "쌍방향 문화 협력과 미래 영화 인재 잇는 가교 역할 기대"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영화 축제의 막이 올랐다.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이하 대표부)는 10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퍼시픽 플레이스 CGV(Pacific Place CGV)에서 '2026 한-아세안 영화제(2026 ASEAN-Korea Film Festival)'를 개최했다.

지난 2017년 양측 국민 간 문화 교류와 우호 협력 확대를 목표로 처음 출범한 한-아세안 영화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2년 재개된 이후 매년 자카르타 현지에서 정례적으로 열리며 대표적인 문화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26 한-아세안 영화제 (2026 ASEAN-Korea Film Festival) 영화 감독과 대담에서 환영사하는 이철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2026.10.15

◆ 나홍진 감독 '호프' 개막작 상영… 양측 최신 화제작 6편 엄선

올해 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 3편과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의 작품 3편 등 총 6편의 장편 영화가 관객들을 만난다.

개막일인 15일 오후 7시에는 2026년 칸 국제영화제 출품작이자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HOPE)'가 개막작으로 상영돼 현지 관객과 영화 관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영화 상영 일정

- 10.15.(목) 19:00 「HOPE」(한국)
- 10.16.(금) 18:30 「Senin Harga Naik」(인도네시아) 20:00 「부활남」(한국)
- 10.17.(토) 13:00 「Mojoku Hilang」(말레이시아) 15:30 「군체」(한국) 17:00 「GOHAN」(태국)

이어 16일(금)에는 인도네시아의 감각적인 신작 '세닌 하르가 나익(Senin Harga Naik)'과 한국의 '부활남'이 차례로 스크린에 오른다. 마지막 날인 17일(토)에는 말레이시아의 '모조쿠 힐랑(Mojoku Hilang)'을 시작으로 한국 영화 '군체', 태국의 화제작 '고한(GOHAN)'이 연속 상영되어 다양한 장르와 시각을 아우르는 문화적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FLY) 연계… 청년 감독들의 글로벌 비전 공유

특히 이번 영화제는 단순한 상영회를 넘어, 차세대 영화 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개막일인 15일 오후에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의 지원으로 부산영상위원회(BFC)가 추진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FLY: Film Leaders Incubator)'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2012년 출범한 FLY 사업은 아세안 10개국의 전도유망한 청년 영화인을 발굴해 단기 집중 교육과 공동 제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영상 산업 발전과 양측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해 온 대표적인 협력 모델이다.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FLY 수료작인 'Laughing and Crying'(필리핀), 'Mey Long'(캄보디아), 'Last Light'(라오스), 'JIWO' 및 'A Gift'(인도네시아) 등 단편 영화 5편이 상영됐다.

'2026 한-아세안 영화제(2026 ASEAN-Korea Film Festival)' 개막 식전행사에 관객과의 대화(GV)에는 FLY 출신인 루키 헤르와나요기(Luhki Herwanayogi), 아디티아 아마드(Aditya Ahmad) 감독이 참석해 'FLY에서 세계로: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의 이야기가 되는가(From FLY to the World : How our story becomes a world story)'를 주제로 심도 있는 대담을 펼쳤다. 이들은 현장 연수 경험이 본인들의 창작 세계와 글로벌 진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산영상위원회에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 외교단·아세안 관계자 대거 참석… "쌍방향 문화 연대와 파트너십 강화"

영화제 개막 리셉션에는 주아세안 외교단과 아세안 사무국 주요 관계자, 현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아세안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확인했다.

이철 주아세안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아세안 영화제는 양측의 청년 영화인, 외교단, 아세안 사무국을 비롯해 문화 교류에 헌신해 온 각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사는 "특히 올해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기반으로 한 FLY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 세대의 창의성을 격려하는 진정한 쌍방향 문화 협력 행사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매개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공감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 한-아세안 영화제'의 모든 상영작은 현지 시민과 영화 팬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17일까지 자카르타 퍼시픽 플레이스 CGV에서 관객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부/ 편집부 종합)



2026 한-아세안 영화제 (2026 ASEAN-Korea Film Festival)에서 FLY 사업에 참여했던 Luhki Herwanayogi 및 Aditya Ahmad 영화 감독과 대담. 2026.10.15.



이철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는 2026 한-아세안 영화제 (2026 ASEAN-Korea Film Festival)에 참석한 주아세안 외교단, 아세안 사무국 직원과 단체 촬영. 2026.10.15.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히잡부터 사쉐까지, 인도네시아 샴푸 시장의 다양한 얼굴

글로벌·로컬 브랜드 각축전 속 한국 샴푸의 생존 전략

HS Code 및 상품명

HS Code	품목 설명
3305.10	샴푸

시장개요

생활필수품의 하나인 샴푸는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 하나다. 모발 세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오늘날 샴푸 제품은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되고 있다. 어떤 제품은 모발을 매끄럽게 하는 기능을 내세우는가 하면, 손상된 모발을 복구한다고 주장하는 제품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피 및 모발 관련 고민이 늘어남에 따라, 대중 브랜드부터 틈새시장을 겨냥한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능과 성분을 내세운 샴푸 제품이 시장에 점점 더 많이 출시되고 있다.

글로벌 샴푸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356억 달러로 평가되었다. 연평균 성장률(CAGR) 4.77%를 기록하며 2026년에는 372억 6,000만 달러로 성장하고, 2031년에는 470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꾸준한 성장은 성분의 투명성과 웰니스 효능을 선호하는 소비자 행동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상거래 역시 수많은 선택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 신제품을 접하거나 브랜드를 전환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소득 증가와 전자상거래 쇼핑 확산에 힘입어 글로벌 샴푸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셜미디어가 많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샴푸 구매 행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정보와 제품 추천을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모발 유형을 직모, 웨이브, 곱슬 정도로만 구분했지만, 최근에는 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모발의 다공성(porosity) 수준이나 앙드레 워커(Andre Walker)의 모발 유형 분류법처럼 더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 분류법은 모발을 1~4번까지의 숫자 유형과 A~C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이러한 세밀한 분석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헤어 제품, 특히 샴푸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히잡 착용자를 겨냥한 샴푸 제품>



[자료: 제조사 제품 홈페이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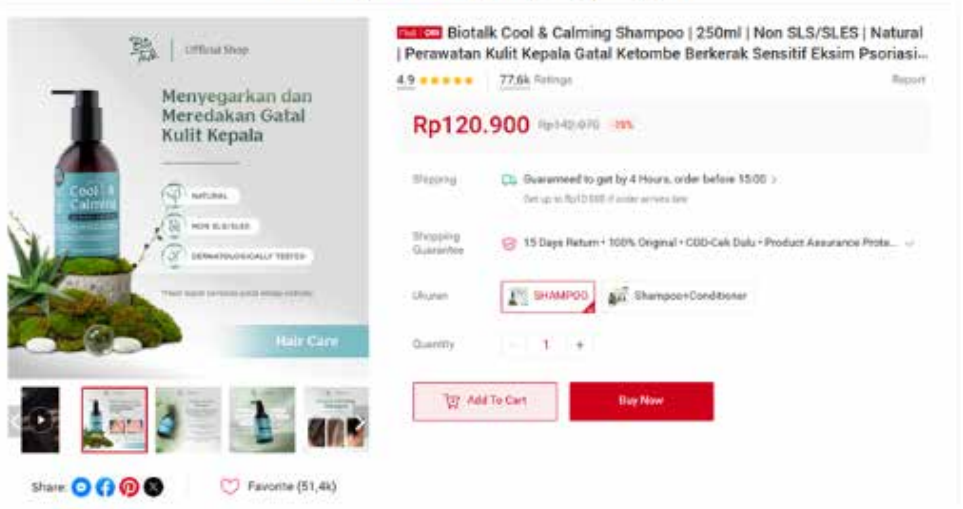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중문화, 환경, 구매력 또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인 만큼, 히잡(머리에 쓰는 스카프)을 착용하는 무슬림 여성을 겨냥한 샴푸 제품들이 히잡 착용자를 위해 별도로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Sunsilk가 출시한 "Sunsilk Hijab Refresh"가 있으며, 이는 시장 최초의 히잡 착용자용 샴푸로 알려져 있다. 히잡 착용자들은 하루 종일 히잡을 쓰고 지낸 뒤 탈모, 두피 유분, 끈적임, 비듬 등 흔한 모발·두피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샴푸 제품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특히 이동량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기업들은 대기오염이 두피와 모발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샴푸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열대 기후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향이 강하고 지속력이 좋은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샴푸 한 병이 다소 비싸게 느껴질 경우, 기업들은 더 작은 용량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는 흔히 '사쉐 경제(sachet economy)'로 불린다. 보통 이러한 소용량 제품은 한 스트립(strip)에 12개의 사쉐가 들어 있는 형태로 판매된다. 이러한 샴푸 사쉐는 흔히 "와룽(warung)"이라 불리는 동네 소규모 상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샴푸는 더 저렴해지고 보급 범위도 넓어져, 다양한 소득 계층의 일상 속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점차 선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들은 제품에 사용된 성분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LS와 SLES 미첨가 샴푸 제품>



[자료 : Shopee, Biotalk 공식 스토어]

SLS(Sodium Lauryl Sulfate)로, 샴푸 제품에 계면활성제로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며 거품을 내고 모발과 피부의 유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세정력이 강한 특성 때문에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민감성 두피를 가진 사람에게는 권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브랜드는 SLS보다 순한 변형 성분인 SLES(Sodium Laureth Sulfate)를 대체 성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SLS와 SLES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는 브랜드도 있다.

한편 전문가용(프로페셔널)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유명 브랜드들이 있는데, L'Oreal Group의 L'Oreal Professionnel, Matrix, Kerastase와 Wella Company의 Wella Professionals 등이 대표적이다. 강세를 보이는 현지 브랜드로는 PT Akasha Wira International Tbk의 Makarizo와 PT Victoria Care Indonesia Tbk의 CBD Professional이 있다. 두 브랜드 모두 자체 공장에서 현지 생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두 브랜드는 리테일 시장에도 진출해 일상적인 가정용 제품 옵션을 제공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PT Akasha Wira International의 화장품 브랜드인 Makarizo는 2025년 회사 전체 매출의 49.6%를 차지했으며, 이는 약 1조 3,500억 루피아(약 7,62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경쟁 동향

인도네시아 샴푸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 Sunsilk, Pantene, Head & Shoulders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대중 인지도, 마케팅,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생산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시장에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가격에 민감한 인도네시아와 같은 시장에서는 생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낮은 소비자가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수입 샴푸 제품은 가격대 특성상 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중상위 소비자층을 겨냥한 리테일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수입 샴푸 제품 중 잘 알려진 브랜드로는 Nature Lab(일본)의 Diane, Hebe Beauty(중국)의 Lavojoy, Fine Today(일본)의 Tsubaki, The Skin Factory(한국)의 Kundal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탈모 완화, 매끄러운 마무리감, 강한 향 등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요구되는 니즈에 맞춘 다양한 종류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들어 새치나 흰머리를 커버하기 위한 컬러링 샴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염모제 제품으로 유명한 Miranda(PT Victoria Care Indonesia)는 대표적인 염모제 브랜드 중 하나다. 이 회사는 5~15분 안에 새치를 커버할 수 있는 즉석 컬러링 샴푸인 Miranda Magic Shampoo Color를 출시했다.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한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매달 9,000개 이상 판매되는 Myiwe Hair Coloring Shampoo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한국산 유사 제품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는데, 가격은 현지 경쟁 제품보다 7~12배 더 비싼 수준이다.

수입 동향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샴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말레이시아에서 샴푸 제품을 생산한 뒤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여러 브랜드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Johnson & Johnson은 자사의 유아용 샴푸 제품을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뒤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리테일 기업 Watsons 역시 자체 브랜드 샴푸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해 인도네시아에 유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샴푸 제품 중에서는 수입업체 PT Woleco Amenities & Accessories가 유통하는 제품이 특히 눈에 띄는데, 이는 호텔 어메니티 용도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PT Woleco Amenities & Accessories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계열사 Woleco Hotel Supplies Sdn Bhd로부터 Le Labo, Byredo, Apotheke, Sodashi 등 글로벌 브랜드의 객실용 어메니티 샴푸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2024년과 2025년에는 이전 연도에 비해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했다. 태국에서 생산되는 샴푸 제품으로는 모두 Procter & Gamble 산하인 Pantene, Rejoice, Herbal Essences, Head & Shoulders 일부 제품들이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만, 일부 용량은 태국에서 생산된다. 예를 들어 Pantene의 Pro-V Anti-Dandruff Pro-Vitamin 샴푸의 경우 1,200mL 용량은 태국에서 생산되는 반면, 그 외 소용량 제품(70mL, 110mL, 145mL, 290mL, 400mL, 750mL, 990mL)은 서자바(West Java) 카라왕(Karawang)에 위치한 P&G의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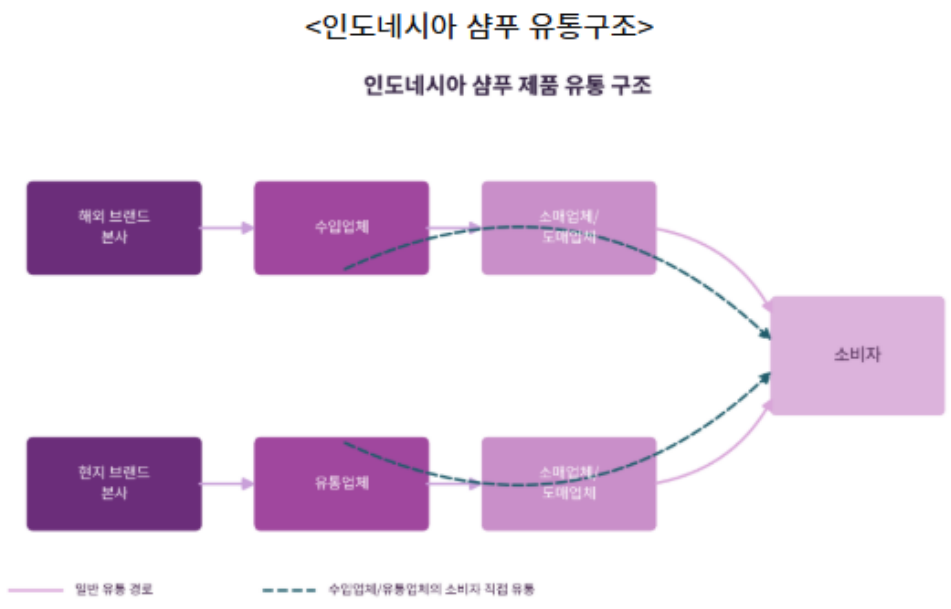
P&G 제품 외에도 Miranda Magic Hair Color 샴푸와 같은 인기 리테일 제품도 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Milbon, Wella Professionals와 같은 유명 전문가용 브랜드 역시 태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태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원인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으며, 태국에서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했다는 정보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인도네시아에 자체 공장을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생산 비중을 현지 생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고, 둘째는 특정 브랜드·제품의 매출 감소 가능성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2~2025년 동안 매년 100만 달러 이상, 상위 5위권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한국 샴푸 브랜드 수는 많지 않지만, 그중 일부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한 상태다. 이들 한국산 샴푸 제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슈퍼마켓, 대형 뷰티 리테일 매장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중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현지 브랜드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샴푸 브랜드들은 500mL 기준 약 8,300원대부터 시작하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수입 샴푸 제품들 사이에서 포지셔닝하고 있다.

유통구조

<인도네시아 샴푸 유통구조>



[자료 :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조사]

인도네시아의 샴푸 제품 유통 구조는 다른 소비재와 유사하다. 수입 제품의 경우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본사(principal)는 공식 수입·유통업체 역할을 할 현지 파트너를 지정해야 한다. 이들 수입업체는 이후 도매업체와 소매업체에 제품을 유통한다. 많은 경우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수입업체들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를 운영하며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Shopee와 TikTok Shop이다. TikTok은 한때 Shopee의 경쟁자였던 인도네시아 최상위 전자상거래 플랫폼 Tokopedia의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히 Shopee와 TikTok은 배송비 할인쿠폰, 할인, 더블데이(10월 10일, 일명 10.10)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판매자들은 플랫폼으로부터 받는 순매출 일부를 쿠폰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1년간 Shopee와 TikTok은 플랫폼 수수료를 잇따라 인상해 판매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팬층이 두터운 브랜드들은 자체 웹사이트를 쇼핑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또 다른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은 온라인 쇼핑 생태계와 인기 덕분에 Shopee와 TikTok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플랫폼이며,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이 쉽게 이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 현지 브랜드와 현지 생산 제품은 수입 제품에 비해 다양한 소비자 계층에 닿는 더 많은 매장에 입점할 수 있어 보급 범위가 더 넓다. 수입 샴푸 제품은 주로 슈퍼마켓이나 Sociolla, Guardian, Watsons와 같은 대형 뷰티 리테일 매장에서 판매되는데, 이는 중저가 전략으로 대중 시장을 겨냥하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방대한 네트워크를 갖춘 2대 편의점 체인인 Indomaret, Alfamart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보급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관세율 및 인증 정보 등

인도네시아 내 유통에 앞서 샴푸 제품은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등록하는 것이

<한국 할랄 인증기관>

기관명	위치	해외 할랄기관 유효기간
BIC Halal Korea	부산	2028.10.29
GL Halal Center (GL HAC)	서울	2030.04.16
Korea Halal Authority (KHA)	대전	2027.11.14
Korea Testing Certification Institute	군포	2028.12.10
Korea-Indonesia Integrated Halal Cooperation Center (KIIHCC)	서울	2029.06.20

[자료 :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정리]

의무사항이다. 등록 절차는 보통 수입업체가 진행하며, 본사(principal)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인증서, 자유판매증명서(CFS), 위임장(LoA), 제조권한위임서(Lo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필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출된 각 SKU에 대한 BPOM의 검토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수입에 앞서 수입업체는 수입통지서(Import Notification Letter, Surat Keterangan Import - SKI))를 신청하고, 조사기관보고서(Surveyor's Report, Laporan Surveyor - LS))를 BPOM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기관보고서는 지정된 조사기관이 원산지 국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 후 발급한다.

올해 10월부터 샴푸를 포함한 화장품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시행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과 정보는 아직 없지만, 화장품 제조사와 브랜드들은 할랄 인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수입 제품의 경우 각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을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 할랄제품보증청) 산하에서 별도로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BPJPH는 한국의 여러 할랄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온라인 제출을 통해 BPJPH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BPJPH는 각 기관별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구체적인 할랄 인증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 중 화장품 분야를 다루며 BPJPH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위 기관 중 한 곳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후에는, 해당 인증서를 BPJPH의 온라인 플랫폼인 할랄정보시스템(SIHALAL)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등록 절차는 본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수입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이 진행한다. 신청 1건당 수수료는 IDR 800,000(약 6만 3,000원)이다. 유효기간은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과 해외 할랄기관과의 협력 유효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해진다.

시사점

현재 인도네시아 내 한국산 샴푸 제품이 많지 않은 만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브랜드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현지 규정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사 또는 현지 대표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BPOM의 독점 정책 특성상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적합한 타겟 시장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을 잘 이해하고 B2B 및/또는 B2C 유통 역량을 갖춘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도네시아 시장을 위해 다양한 용량을 제공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더 작은 용량을 제공해 판매 가격을 낮추거나 잠재 고객이 제품을 시험해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수입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OEM 공장을 찾아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향이 오래 지속되고, 흔한 모발·두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가격이 합리적인 등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10월 인도네시아의 할랄 정책 시행을 앞두고, 더 넓은 소비자층에 다가가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위한 시장도 일부 남아있겠지만, 할랄 인증 제품 시장에 비해 그 규모는 훨씬 작을 것이다.

자료 : UN Comtrade, 인도네시아 재무부,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시〉

연 날리던 날



이은주
(한국문협 인니지부 부회장)

꿈조차 꾸지 못한
무엇이 있다면 훨 띄어 보라며
아버지께서 주신 연 하나

노을이 지는 저녁
못다 이룬 꿈들이 고향의 박제로
물레에 감겨 연줄로 남아있다

날고 싶은 날,
고향에 닿을 수 없는 마음은
한 올 가느다란 생명줄 아슬아슬하게 잡고
하늘로 오르며
가볍게 올려다본 하늘은
푸른 달빛 속 바람 불던 유년길

꿈을 잃어버렸던 저녁이
아직도 허공을 맴돌고
갈래갈래 마음 길을 더듬다가
이룰 수 없는 꿈 한 자락 하늘로 높이 올라
무한 천공 작은 점은 꿈길이 되어
바람을 따라 길을 만드네

팽팽한 유년의 바람을 가르며
땅거미가 어둑하도록 연을 띄우다
보고 싶다는 맺힌 말들이 하염없이 연줄을 끊고
얼레로 돌아올 수 없는 먼 고향을 찾아간다

시작 노트:

시인의 말에서 빌리자면, “발리의 어느 해변에서 아이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에서 시가 시작된다. 적도의 노을은 유난히도 붉고 선명하다. 한 번씩은 그 붉음이 서럽기까지도 한 날들이 많았다. 아는지 모르는지 하늘을 날고 있는 유년 시절의 꿈이 외국에서 타향살이하는 시인의 모습 위로 오버랩 된다. 얼레로 감아둘 수 없는 그리움이, “보고 싶다는 맺힌 말들이 하염없이 연줄을 끊고/ 얼레로 돌아올 수 없는 먼 고향을 찾아간다.” 글: 김주명(시인)

한인동포 외국인 전용 건강검진 사업
국가별 도시별 글로벌 파트너 모집
검진예약 원스톱 플렛폼 '스캔포스트'

ScanPost 스캔포스트
Korea Medi Check Solutions & Services

www.scanpost.kr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식 글로벌 에이전시
- AI기반 최첨단 의료 인프라와 최다 의료진
- 여행지 전국 주요도시 17개 지부에서 검진
- 외국인 전용 검진센터(인천.서울.원주.부산.제주)
- 내/외국인을 위한 동일 가격 패키지 제공
- 주요도시 국내 관광 여행 최고 패키지 완비

코리아메디패스 (Korea Medipass) |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SOFTZION | HanInPost 한인포스트 | JACY CLUB

@scanpost

koreascanpost@gmail.com / kakao ID : scanpost

www.scanpost.kr





